

원희룡 장관, “신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교육과 건설기계 e-마당을 통한 원활한 구직활동 지원 강조”

- 20일 오후, 신규 타워크레인 조종사 교육 실습 현장 방문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0일(화) 16시경 ‘건설기계 e-마당’을 통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채용한 임대사의 주기장(경기도 용인시)을 방문하여 건설기계 e-마당 활성화 방안과 신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 - ‘건설기계 e-마당’은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조종사와 임대사 간 구인-구직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 현재까지 405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41개의 임대사가 가입하였으며,
 - 원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건설기계 e-마당을 통해 신규 조종사를 채용하고 교육시키기 위하여 준비 중인 주기장이다.
- 원 장관은 교육 실습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“타워크레인 현장에서는 가장 무거운 하중물을 다루고,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계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”이라고 강조하며,
 - “신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경험 많은 교관과 함께 충분한 실습을 거치는 것이 현장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 기대했다.
 - 또한, 원 장관은 “임대사는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조종사를 확보하고, 건설사는 안심하고 작업을 맡길 수 있는 우수한 조종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밝혔다.
- 또한, “그간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수급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신규 조종사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으나,
 - 앞으로는 임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규 조종사도 건설기계 e-마당을 통하여 공정하게 채용되고, 교육까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간담회 종료 후에는 건설기계 e-마당을 통하여 새롭게 채용된 조종사 4명이 정식으로 임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교육·실습 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.

2023. 6. 20.

국토교통부 대변인